

한국법제연구원 NEWS

한국법제연구원, 2020 서울 국제통번역 포럼 개최

일시
2020년 12월 3일(목)-4일(금)
장소
온라인 웨비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일(목)과 4일(금) 양일간 ‘법과 언어의 인터페이스: 법률 통번역(Interface between Law and Language: Legal translation and interpreting)’을 주제로 2020 서울 국제통번역포럼을 개최했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세계 각국의 법률 통·번역 동향과 전망을 짚어보고, 대한민국 영문법령집과 데이터베이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10개국의 법령번역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사법통역 ▲법과 언어 ▲법률번역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날인 3일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산드라헤일 교수가 ‘정의의 투쟁: 호주 사법통역이 승리한 전투들’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다. 이어 이화여대 이지은 교수,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 미란다 라이 부교수, 부산대 법전원 김현수 교수 등이 참석해 ‘사법통역 시 대처 전략으로서의 수정’, ‘소수 언어를 위한 사법통역사 멘토링 시범 프로그램’, ‘법령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했다.

4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루시아베일 교수가 ‘법률

번역 최신 연구 동향’을 주제로,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안 엔베르그 교수가 ‘법률번역을 위한 다차원적 지식의 생성’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다. 이어 한국외대 김진아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정혜진 감수팀장(현 번역팀장)이 한중 법령번역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번역 실무가의 측면에서 살펴본 법령번역 등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별좌담회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지난 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통역사로 활동한 정지수 통역사와 영화 ‘기생충’ 통역사로 알려져 있는 사론 최가 참석하여 ‘법률통역시장의 현황과 전망’과 ‘한국영화의 세계화와 통역’을 주제로 당시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양질의 법률 번역과 통역은 법률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든든한 반석이 된다”며 “이 자리가 법률분야의 통번역 전문가들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며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장소
온라인 생중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7일(목) 박광은 국회의원실 및 홍익표 국회의원실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무관중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세미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최유경 팀장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주요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최 팀장은 발제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과 안전, 연대와 상생에 이르는 폭넓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 본 법의 제정 필요성과 의의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장, 김창봉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고광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김계홍 원장은 세미나 개최사에서 “이번 정책세미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주요 내용과 타당성 등을 토론하고, 사회적 가치 법제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광은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경우 나타나게 될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홍익표 의원은 “공공부문을 필두로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혁신성장지원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입법화 및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기반을 다져왔다.

한국법제연구원 30주년 기념 「법제 연구 30년, 성과와 전망」 발간

일시
2020년 12월 31일(목)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12월 31일, 한국법제연구원 30년사 「법제 연구 30년, 성과와 전망」을 발간하였다.



「법제 연구 30년, 성과와 전망」은 1990년 개원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의 30년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하여 향후 법제전문국책연구기관으로써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연구원 구성원과 원우의 뜻을 모아 발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발간사에서 “30년사 발간에 힘을 모아주신 대표집필진과 원우들, 그리고 연구원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법제 연구 30년, 성과와 전망」을 밑거름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법제 연구 30년, 성과와 전망」은 연도별 과제 수행 현황, 법령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 성과, 향후 연구사업 전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 시무식 개최

일시
2021년 1월 4일(월)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4일(월)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1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는 승진자 및 신입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우수 직원·우수 팀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소수의 행사관계자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및 연구원 내 TV로 실시간 송출되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기관장의 새해인사 대신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을 비롯한 일곱 명의 직원들이 한 해의 포부와 각오를 밝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현철 부원장은 “2021년은 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지나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는 해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준비하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령번역센터의 선우태용 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새기며 국민행복과 공익을 위한 한 해를 보내고자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1년 1월 21일(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운)은 1월 21일(목)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드론 제도개선 및 상호협력을 통한 드론안전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드론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연구 및 자문 ▲드론 관련 연구결과 및 안전정보 공유, 정부정책

관련 조사·연구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드론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드론안전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논의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전기술 등 드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 연구직
연찬회 개최**

일시
2021년 2월 2일(화)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월 2일(화)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2021년 연구직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원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날 연찬회는 기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본·수시연구 관련 주요사항 ▲수탁연구 및 연구원 인력 활용 방안 ▲평가제도 및 대외활동 관련 사항 ▲연구원 현안의 순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 좋은 성과가 산출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
개최**

일시
2021년 2월 22일(월)-24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대상은 기본과제 12개와 일반사업 8개 등 총 20개 과제로, 과제별 연구 책임자가 과제수행계획을 발표하고, 원내 외 심의위원이 심의의견을 발표, 이후 전 연구직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과제별로 한 시간씩 심의 시간을 배정하여 책임자와 심사위원, 참여 연구직이 각 과제의 수행 방안과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날인 22일에는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의 사회로 7개의 기본과제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플랫폼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등 코로나19와 사회변화에 관련한 대형 연구과제 및 ▲법제이력 조사연구(II)-국토계획법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는 사회 부분별 총 12개 분과의 전문가 그룹을 포럼단으



로 구성, 연중 운영할 예정으로, 각 분야 관/산/학/연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결과에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3일, 24일에는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등 기본연구과제와 ▲규제혁신법제연구(I) ▲사회적가치 법제연구(III) ▲글로벌법제전략연구(XI) 등 일반연구사업에 대한 착수연구심의회가 진행되었다.